

## 서울 성북구 도시생태문화탐방로 조성방안

# Development of Urban Ecology & Culture Trail in Sungbuk-gu, Seoul

한봉호<sup>1</sup> · 기경석<sup>2</sup> · 최태영<sup>2</sup> · 노태환<sup>2</sup>

<sup>1</sup>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sup>2</sup>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론

도심 공공공간의 면적 확대와 더불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개의 오픈스페이스들의 연계 및 접근성을 높이는 그린웨이 등의 보행 네트워크 조성이 최근 늘고 있다(양석우, 2007). 1990년대 이후 역사탐방로의 조성이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성곽 내부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역사탐방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서울시, 1994). 또한 최근 국민들의 여가 행태에서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차원에서 다양한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생태자원 유형을 분류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역사문화자원 등 생태탐방에 가치가 있는 자원을 포함하는 주요 생태자원을 활용한 도심형 생태탐방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계획하고 있는 상태이다(이승주, 2009). 도시생태문화탐방로란 기존의 역사탐방로, 생태탐방로 등의 개념을 통합하여 도시의 역사문화자원과 생태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환경개선과 지역 주민의 여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탐방로라 할 수 있다.

성북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자원인 서울성곽이 구의 서측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성북동 일대에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관광지이다. 또한 WHO 건강연맹도시의 회원구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매월 구민걷기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도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반면 과거 북한산에서 개운산까지 흘러드는 주

요 산림축이 도심지 개발로 인해 단절되었으며 구의 주요하천인 성북천과 정릉천은 일부구간을 제외한 지역이 복개되어 있거나, 인공하천으로 되어 있어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성북구의 풍부한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녹지질의 개선과 도시민의 건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성북구 도시생태문화탐방로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재료 및 방법

####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 성북구로 성북구 행정구역 전체 24.57km<sup>2</sup>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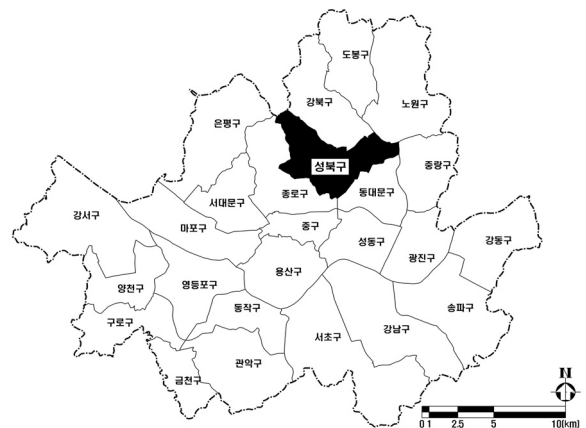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도

## 2. 조사분석 방법

성북구의 도시생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현존식생, 지형구조를 분석하였고 역사문화자원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 및 공원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토지이용은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지구, 지목을 응용하여 현재의 토지이용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1/1,000 수치지형도에 도면화하고 Arcview GIS 3.3을 이용하여 토지이용도를 작성하였다. 현존식생은 대상지내 교목층 우점종의 식생상관(vegetational physiognomy)을 기본으로 1/1,000 수치지형도에 분포현황을 도면화하고 Arcview GIS 3.3을 이용하여 현존식생도를 작성하였다. 지형구조는 1/1,000 수치지형도에서 등고선을 추출하여 Arcview GIS 3.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 분포현황은 도시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적, 문화공간, 종교시설, 명소, 상업지, 가로, 경관, 자연지역, 학교, 아름다운 나무의 10개 항목에 대한 분포현황도를 작성하였다. 공원녹지 분포현황은 성북구에 위치한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분포현황을 도면화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1. 성북구 도시생태문화현황

성북구 도시생태현황 분석결과 토지이용에서는 시가화지역이 전체 면적의 64.9%를 차지하였다. 주택지가 전체면적의 28.5%로 가장 넓었으며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의 교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용도지 비율이 6.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는 35.1%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림은 전체면적의 31.4%로 성북구 서측의 북한산, 북악산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산림을 제외한 나머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의 면적비율은 작게 나타났다. 성북구의 하천 및 호소는 0.6%이며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 우이천 등의 하천이 해당되었다. 중랑천과 우이천은 구의 동측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성북천은 구의 서측에 흐르는 하천으로 상류는 복개되었고 하류는 인공형 하천이었다. 정릉천은 구의 중심부를 흐르는 하천으로 내부순환로 하부지역이 복개되어 있고 하류의 일부 구간이 인공하천으로 개방되어 있다. 주요 공원녹지는 외곽

산림의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시가화지역 내부의 개운산근린공원, 낙산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청량근린공원이었다.

성북구의 현존식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연림은 성북구 전체 면적의 20.7%이었으며 졸참나무림이 10.1%, 소나무림이 7.9%로 가장 넓게 분포하였다. 자연림은 주로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청량근린공원에 분포하였다. 인공림은 성북구 전체 면적의 10.2%이었으며, 아까시나무림이 7.8%, 리기다소나무림이 1.3%이었다. 인공림은 성북구 내의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 주로 분포하였다.

성북구 지형구조와 수계구조를 분석하여 도시생태축 원형도를 작성한 결과 서측의 북한산 산림능선에서 뻗어온 산림녹지축이 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져 있었고, 오동근린공원과 청량산을 잇는 산림녹지축이 분포하였다. 주 하천생태축은 정릉천과 성북천으로 동서로 흐르고 있었다.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현황 분석결과 역사문화자원은 문화유적 19개소, 문화공간 9개소, 종교시설 19개소, 명소 16개소, 상업지 8개소, 가로 6개소, 경관 4개소, 자연지역 8개소, 학교 6개소, 아름다운 나무 55개소로 총 150여 개소가 위치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나무는 구에서 지정 및 관리하는 고령목, 대경목 혹은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총 13종 55주가 지정되어 있다. 성북구에는 과거 조선시대 수도인 한성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며 북한산, 북악산의 자연경관, 성북동 일대의 명소 등 주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장소가 다수 입지해 있다.

도시생태 부문에서 녹지는 산림이 대부분이었고 도시내부로 산림 및 하천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으나 시가화지역에 의해 곳곳이 단절되어 있었다. 하천은 자연하천, 자연형하천, 인공하천, 복개하천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복개하천은 도로,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일부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역사문화자원 부문에서는 성북구 내에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총 150개소 분포하였고 아름다운나무 13종 55주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및 녹지축의 연결을 통한 도시생태문화탐방로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 성북구 도시생태문화현황

구분	내용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면적의 31.4%가 산림(북한산, 북악산)</li> <li>고려대, 국민대 등 대학교 다수 위치</li> </ul>
도시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림 20.7%, 인공림 10.2%</li> <li>졸참나무림 10.1%, 소나무림 7.9%, 아까시나무림 7.8%</li> </ul>
녹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능선에서부터 도심 내부로 산림 및 하천녹지축이 연결됨</li> <li>녹지축 단절구간 다수 분포</li> </ul>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배밭골천 총 5개 하천</li> <li>자연하천, 자연형하천, 인공하천, 복개하천, 분포</li> </ul>
역사·문화·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문화·자원</li> <li>서울성곽, 숙정문, 정릉 등 150여 개소 분포</li> </ul>
큰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총 13종 55주 지정 관리</li> </ul>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공원 1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 2개소,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20개소로 총 30개소 분포</li> </ul>

2. 도시생태문화탐방로 유형설정

성북구 도시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한 4가지 탐방로 유형을 설정하였다. 탐방로 유형은 크게 도시생태탐방과 도시문화탐방으로 구분하였다. 도시생태탐방은 산림 및 녹지축의 연결을 통한 산림생태탐방과 도시하천탐방을 위한 하천생태탐방으로 분류하였다. 도시문화탐방은 성북구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연결을 통한 역사문화탐방과 공원내 주제산책로 조성을 통한 도시공원탐방으로 분류하였다.

표 2. 성북구 도시생태문화탐방로 조성유형

유형구분	내용
도시생태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생태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산림녹지축 연결구간 자연생태자원 탐방</li> </ul> </li> <li>하천생태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개, 인공하천의 자연형하천 복원 및 생물서식처,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하천생태자원 탐방</li> </ul> </li> </ul>
도시문화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문화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역사·문화자원 분포지역 역사·문화자원 탐방</li> </ul> </li> <li>도시공원탐방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지형 공원내 주제산책로 조성구간 숲길 탐방</li> </ul> </li> </ul>

3. 도시생태문화탐방로 조성방안

성북구 도시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유형별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1) 산림생태탐방로

총 3개 노선을 계획하였다. 첫째, 성북스카이웨이는 개운산에서 시작하여 북악스카이웨이, 서울성곽을 연결하는 그린웨이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연장은 17.3km이다. 이를 통해 북한산에서 뺏어나온 개운산까지의 자연축을 복원하고 서울성곽, 성북동 문화유적, 성북천과 연계가 가능하다. 둘째, 오동스카이웨이는 오동근린공원, 장위뉴타운, 석관동 고밀도심지, 청량산을 연결하는 그린웨이로 길이는 총 11.8km이다. 이를 통해 청량산과 오동근린공원의 자연축을 복원하고 장위뉴타운 계획과 연계조성이 가능하며, 산림청과의 협의를 통해 청량근린공원을 개방하는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 셋째, 제 2 북악스카이웨이는 기존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에서 숙정문 탐방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길이는 약 1.7km이다. 이를 통해 성북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북악산 자연환경 관찰과 성북동 경관 탐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존 군사용 소로를 정비하여 탐방로로 재조성하고 군사용 소로가 없는 구간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망점 및 산책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하천생태탐방로

총 3개 하천에 대한 탐방로를 계획하였고, 우선적으로 하천생태탐방을 위한 하천복원이 필요하였다. 첫째, 성북천 하천생태탐방로는 성북천 상류 복개구간의 도로 철거 후 자연형 하천조성이 필요하며, 하류 인공하천 구간의 자연형 하천 복원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성북천의 생태탐방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정릉천 하천생태탐방로는 하천 중류 복개구간의 하천복원의 실시가 필요하였다. 이와 함께 거점녹지와 연계된 수변 동식물 서식처 복원과 지하수 유출수 및 지류의 물 재활용을 통한 수량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을 계획하였다. 셋째, 월곡천 하천생태탐방로는 성북구내 월곡천 전구간(1km)이 복개되어 있어 자연형 하천 복원 및 하천생태탐방로 계획수립이 필요하였다.

표 3. 성북구 도시생태문화탐방로 조성방안

유형구분	계획명	조성내용	조성길이
도시생태탐방	•성북스카이웨이	•개운산~북악스카이웨이~서울성곽 연결 그린웨이	17.3km
	•오동스카이웨이	•청량산~오동근린공원~장위뉴타운 연결 그린웨이	11.8km
	•제 2 북악스카이웨이	•군용순찰로 숲길 정비 및 기존 북악스카이웨이 연결	1.7km
하천생태탐방	•성북천 하천생태탐방로	•성북천 자연형 하천 조성 및 복개하천 복원	4.7km
	•정릉천 하천생태탐방로	•정릉천 생물서식처 및 친수하천 조성	3.5km
	•월곡천 하천생태탐방로	•복개 철거 후 자연형 하천 조성	1km
도시문화탐방	•서울성곽 탐방로	•낙산근린공원 탐방로 조성, 서울성곽 훼손지역 복원, 북악산 서울성곽 탐방로 연계	4.2km
	•성북 역사문화 탐방로	•역사·문화자원 탐방코스 설정	6.3km
	•성북 문화거리	•하나로거리 문화거리 조성(250m) •잠살이길+개운사길 문화거리 조성(680m)	하나로거리 250m, 잠살이길+개운사길 680m
도시공원탐방	•산지형 근린공원 숲길	•개운산, 오동, 청량근린공원 주제숲길 조성	개운산 2.7km, 오동 1.1km, 청량 2.6km
총 4개 유형 14개소 57.83km 조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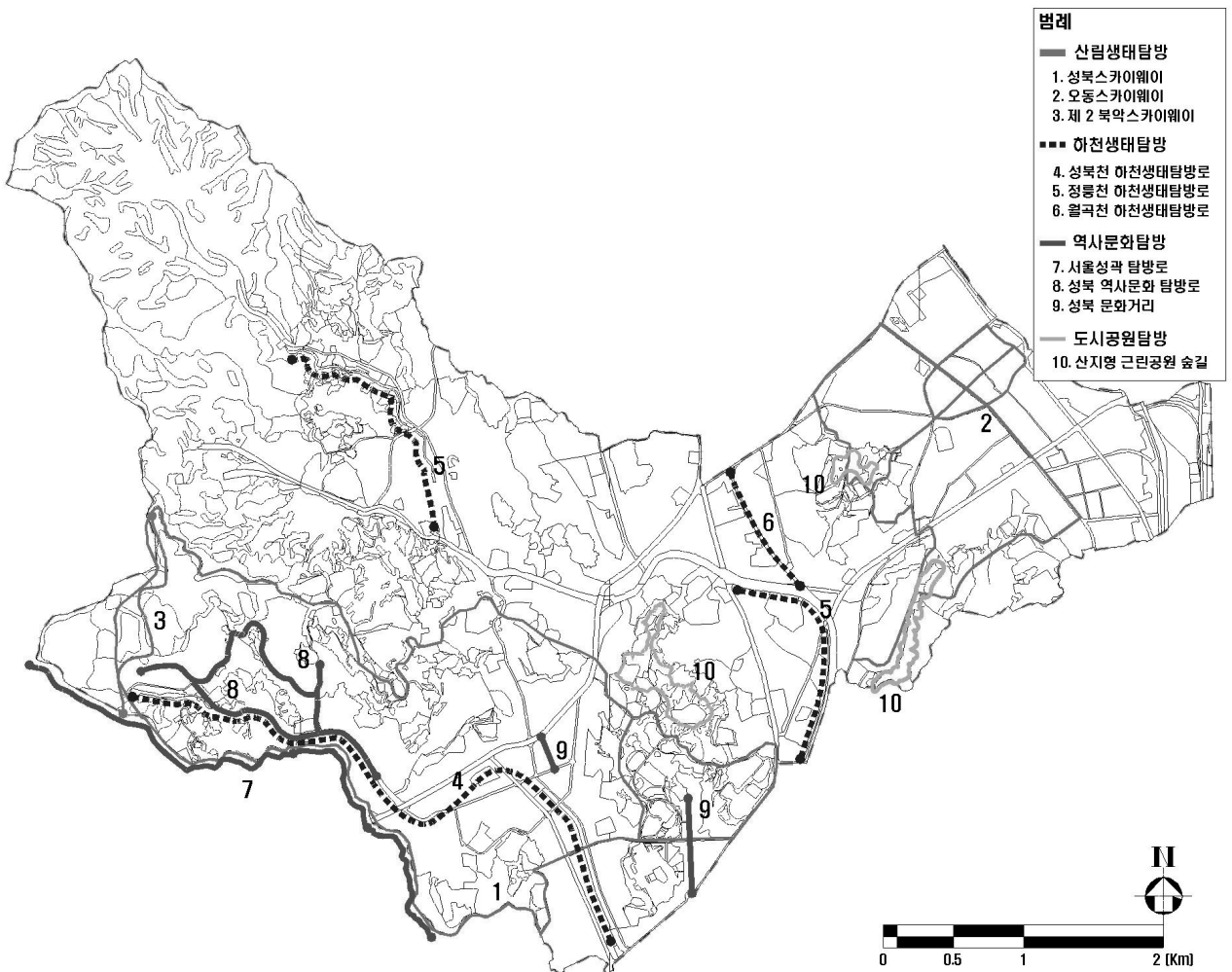


그림 1. 성북구 도시생태문화탐방로 종합도

### 3) 역사·문화탐방로

총 3가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서울성곽탐방로는 서울성곽 훼손지역을 복원하고 기존 성곽과 연결하여 탐방하는 계획으로 조성길이는 4.2km이다. 이를 위해 성곽주변 불량주거지 철거, 공원부지 확장 및 서울성곽 원형복원이 필요하였다. 또한 동소문로에 의한 성곽 단절구간에 보행교 조성을 통한 연결이 필요하였다. 둘째, 서울역사·문화탐방로는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분포하고 있는 지역에 두 개 노선, 총 6.3km 구간을 계획하였다. 탐방로 조성시 주요 지점의 이정표 및 해설판의 설치와 탐방로가 지나는 가로의 가로녹지 조성 및 가로시설물 정비를 계획하였다. 셋째, 성북 문화거리는 두 개 노선으로 하나로 거리 250m 구간과 개운산길 및 참살이길 680m 구간이다. 가로녹화 및 시설물 정비, 주변 상가 경관개선, 주변 블록 문화정비지구 지정, 차없는 거리 등을 계획하였다.

### 4) 도시공원탐방로

산지형 근린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공원별 주제숲길을 계획하였다. 개운산근린공원의 주제 숲길은 노선 연장 2.7km이며 자연 생태계 관찰 노선 및 자연해설판 설치로 자연의 숲길(Nature Way)을 계획하였다. 오동근린공원은 노선 연장 1.1km.이고 조망점 및 경관해설판을 정비하여 경관의 숲길(Panorama Way)을 계획하였다. 청량근린공원은 홍릉수목원 내에 환경사 산책로를 이용한 명상의 숲길(Comfortable Way)을 계획하였다.

## 인용문헌

- 서울특별시(1994)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계획, 129쪽.
- 양석우(2007) 도시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위한 계획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설학회논문집 23(6): 209-220.
- 이승주(2009)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를 위한 내곡리 여산팔경 마을 생태탐방로 노선설정 방안 연구. 농촌계획 15(3): 61-79.